

구곡원림의 원류, 중국 무이구곡(武夷九曲)의 텍스트성

- 국내 전승(傳承) 과정을 중심으로 -

노재현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A Study on the Textuality of China's Wuyi-Gugok, the Origin of Gugok-Wonlim - Focus on the Tradition Process to Korea -

Rho, Jae-Hyu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how the cultural phenomena associated with 'Wuyi-Doga(武夷棹歌)' and 'Wuyi-Gugok(武夷九曲)' was introduced to Joseon. The icon and code of 'Gugok' cultural text which was observed in the process of transmitting the culture through repetition and imitation were examined. With regard to research methodology, an 'analysis and discussion framework' was design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field survey and the seven textuality criteria proposed by Dressler. Then the textuality of 'Wuyi-Gugok' was analyzed in terms of the dependent relation of tex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eator and user, repetition, imitation and the spread process.

Since ZhouHee(朱熙)'s 'Wuyi-Doga' and 'Wuyi-Gugok' were introduced to Joseon through literature and paintings, they became a part of the cultural phenomena with unprecedented popularity. As a result, a great number of imitations can be found. In addition, governors would even take care of political affairs in a scenic mountain valley as described in this literature. Regardless of the writer's intention, 'Gugok' settled in Joseon as new culture in harmony with Taoism and Sung Confucianism. In other words, Joseon's Gugok-Wonlim(九曲園林) accepted the nature-appreciation aesthetic consciousness in 'Wuyi-Doga' and 'Wuyi-Gugok' on the basis of Taoism and Sung Confucianism. In terms of the text-based dependent relation only, however, the geographical coherence was somewhat loosened while the Gugok Culture that was dependent on Taoism or elegance in life dominated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textuality.

Meantime, the internal factors that dominated the textuality of 'Wuyi-Gugok' were interpreted as 1) 'Aesthetics of Bending, Water Whirls', 2) 'Territoriality Expression, Carve letters,' 3) 'Cultural Landscape seeing through the Speculation of Meaning,' 4) 'The Pursuit of Oddness and Presentationism' and 5) 'Transcendental Landscape of Taoism and Topos.'

Key Words: ZhouHee(Chu His), Wuyi-Doga, Gugok-Gye, Hermeneutics, Cultural Text

Corresponding author: Jae-Hyun Rh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Jeollabuk-do 565-701, Korea, Tel.: +82-63-290-1494, E-mail: orchid@woosuk.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무이도가(武夷權歌)'나 '무이구곡(武夷九曲)' 관련 문화현상이 어떠한 연유와 과정으로 조선시대에 수용되었으며 내재된 담론과 문화적 응집의 규칙성, 특히 국내에서 구곡문화의 반복과 모방을 통한 전승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은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 시도되었다. 문헌고찰 및 현장답사에 의한 경관 인식과 함께 드레슬러(Dressler)가 제시한 텍스트성의 7가지 기준을 근거로 '해석 및 논의 틀'을 구축하고 텍스트의 의존관계,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계, 반복 및 모방 그리고 전파과정으로 나누어 '무이구곡'의 텍스트성을 해석하였다.

텍스트 파악 의도와 상황적 근거로 볼 때 주자의 무이도가 그리고 무이구곡 경영은 무이산지 등의 문헌과 그림을 통해 조선에 전파되면서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국내에서도 산간 계곡의 뛰어난 지형경관에 구곡을 설정하며, 정사를 경영하는 등 문화적·원림경관적 반복과 모방 사례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겨났다. 생산자의 의도 또는 용인에 관계없이 조선에 수용된 구곡문화는 수용자 계급이 지향한 도교문화적 상황과 유교의 경세제민(經世濟民)적 사대부 사고관에 편승하면서 새로운 문화로 정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조선 구곡원림은 무이도가와 무이구곡에서 나타난 상자연(賞自然)의 미의식을 수용하면서 도교와 성리학적 사유방식과 결합되었다. 그러나 텍스트적 요인에 의한 의존 관계만을 살펴 볼 때, 국내에는 무이구곡과 같이 배를 타고 하상을 거슬러 올라갈만한 장소가 드문 관계로 하천 형태와 기능적 텍스트성으로서의 결속구조는 다소 이완된 채 도학적 사교나 풍류적 향유에 의존한 구곡문화가 텍스트성의 내적 구조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무이구곡'의 텍스트성을 지배하는 내적 요인은 「굽음의 미학, 물돌이」, 「영역성의 표현, 각자(刻字)」, 「의미경관의 성찰로 본 문화적 풍경」, 「기(奇)의 추구하고 표상성」 그리고 「도교와 성리학적 토포스의 초월적 풍경」으로 해석되었다.

주제어: 주자(朱子), 무이도가(武夷權歌), 구곡계(九曲溪), 해석학(解釋學), 문화텍스트

I. 서론

구곡원림(九曲園林)¹⁾은 중국 송나라 시기 태동한 원림 형태로 그 시원(始原)은 주자(朱子: 1130~1200)의 무이구곡(武夷九曲)에서 찾을 수 있다(이은창, 1988). 주자의 일생과 행적은 국내 구곡문화 형성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유준영, 1981; 최기수, 1990; 최종현, 2000; 신두환, 2007; 강신애, 2007). 무이구곡은 조선 사대부들에게 이상적 자연이며 성스러운 곳인 동시에 아름다운 현실 속의 유토피아(민주식, 1999)로 각인되었다. 곡가계(曲歌系)시가는 무이도가(武夷權歌)에 대한 감흥을 함축하고 유교의 상(賞) 자연적 산수관 정착의 계기가 되었으며,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차운되거나 새롭게 창조된 구곡가와 구곡도는 구곡원림 문화를 부흥케 한 계기이자 원동력이었다. 주자의 무이도가를 텍스트로 퇴계는 「도산십이곡」을, 율곡은 「고산구곡가」를 지었으며, 이후 무수히 많은 구곡가와 구곡도가 양산되었는데, '구곡'을 테마로 한 시서화(詩書畵) 문화콘텐츠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미적 취향을 강하게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절경인 동시에 신유학(신두환, 2007)의 산실' 무이구곡이 실존하고 그 정신이 면면히 전승되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무이도가와 무이구곡의 문예미학과 산수평론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있어 왔지만 정작 무이도가나 무이구곡과 관련된 문화현상이 어떠한 연유와 과정을 거쳐 국내에 수용되

었으며 그 속에 내재된 담론과 응집(cohesion)의 규칙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악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는 '무이구곡'이라는 텍스트와 '국내 구곡' 하이퍼텍스트간의 관련성을 '무이도가'라는 언어와 '무이구곡'이라는 경관 양자(兩者)의 해석을 목표로 논의함으로써 구곡원림문화발상지 중국 무이구곡의 원전성(原典性: textuality)과 내적 요인을 파악하여 국내 전파되어 정착한 구곡원림문화의 구성요인과 특성을 집중 조명하고자 하였다.

II. 구곡 관련 연구동향

구곡 관련 텍스트에 관련한 국내 연구는 구곡가계 시가 및 무이구곡도의 발생과 전승 그리고 유형화 등을 중심으로 국문학 및 미술사 분야에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탐구가 이루어져 왔다(표 1 참조). 또한, 건축분야에서 남창근과 이재현(2000)은 주자의 무이정사와 조선 중기 정사 구곡원림을 중심으로 공간적 특성을 탐구하였으며, 강성원(2003)은 은병정사의 조영 의미를 미학적으로 접근한 바 있다. 한편, 조경분야와 관련해서는 연구의 폭과 양이 넓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은창(1988)의 '한국 유가 전통원림의 연구'를 필두로 최기수(1990, 2004)는 한국전통경관의 원형질적 요소로서 곡과 경을 파악하고 곡의 연원과 전래 그리고 그 의미 등을 해석함으

표 1. 무이구곡 관련 연구의 갈래와 논제

분류	연구자(년도)	논제
구곡가계 시가와 산수평론	황진성(1965)	· 고산구곡가 연구
	황충기(1980)	· 입암별곡과 입암이십구곡의 대비 고찰
	이민홍(1982)	· 무이도가 수용을 통해 본 사립과 문학의 일양상
	이민홍(1985)*	· 사립파의 무이도가 수용에 대하여: 도교적 전설과 제도적 부회
	김주한(1983)*	· 퇴계의 주자시 이해✓
	최진원(1987)	· 고산구곡가고
	조태홍(1987)	· 고산구곡가의 구조와 의미
	강정서(1993)	· 구곡가계 시가에 나타난 공간이미지와 지향의식*
	고정희(2005)	·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언어적 차이와 시가사적 의미
	김병국(1990)	· 고산구곡가 연구
	김문기(1991)	· <무이도가>와 <고산구곡가>의 품격 연구✓
	김문기(1991)	· 구곡가계 시가의 계보와 전개양상✓
	손오규(1992)	· 고산구곡가의 미적 위상
	김창원(1997)	· 호중천지의 원림미학과 <도산십이곡>의 상호
	강정서(1998)*	· 퇴계의 <무이도가> 시인식의 한 국면: 제구곡시를 중심으로✓
	이민홍(1999)*	· 조선조 중기 선비들의 시의식: 주자시의 평석(評釋)를 중심으로
	이상주(1999)	· 구곡시의 전통과 화양구곡시
	이상주(2001a)	· 구곡문화관광특구와 구곡시 연구
	이상주(2001b)	· 낙우당구곡과 낙우당구곡시의 분석
	이상주(2001c)	· 옥화구곡과 옥화구곡시
	이창식(2001)	· 권섭의 <황강구곡가> 연구
	이상주(2002)	· '서계팔곡'과 「서계팔영」시
	이상주(2003)	· 운선구곡과 운선구곡시
	김병국(2003)*	· 무이도가와 고산구곡가 품격 비교
	이상주(2004)	· 정재응의 쌍계구곡과 쌍계구곡시
	박이정(2002)	· 18세기 예술사 및 사상사의 흐름과 권섭의 '황강구곡가'
	손오규(2002)	· 산수문학에서 <곡가계시>의 공간인식✓
	조혜숙(2003)	· 무이도가와 무산십이곡의 품격연구✓
	이민홍(2003)	· 서시의 한중 화은시 비교 고찰✓
	이상원(2003)	· 조선 후기 고산구곡가 수용양상과 그 의미✓
	손오규(2004a)	· 무이도가의 수용과 변용에 대한 일고찰✓
	손오규(2004b)*	· <무이도가>와 <도산십이곡>의 비교연구✓
	김문기와 안태현(2005)	· 문경지방의 구곡원림과 구곡시가 연구✓
조성덕(2005)	· 무이도가의 수용과 변용에 대한 일고찰	
심우영(2006)	· <무이산지>의 주자시 내용 연구✓	
김문기(2008)	· 도산구곡원림과 도산구곡시 고찰	
구곡 문예미학	손오규(1992)	· 고산구곡가의 미적 위상
	강정구(1993)	· 구곡가계시가에 나타난 공간이미지와 지향의지✓
	민주식(1999)	· 조선시대 지식인의 미적 유토파아✓
	신두환(2007)	· 조선 사인의 「무이도가」 비평 양상과 그 문예미학✓
	이상주(2006)	· 조선 후기 산수평론에 대한 일고찰✓
김문기(2008)*	· 퇴계구곡과 퇴계구곡시 연구	
구곡 공간인식	김의숙(2006)	· 화천의 곡운구곡과 김수증 연구
	손오규(2002)	· 산수문학에서 「곡가계시」의 공간인식✓
	조혜숙(2003)	· 전승과 향유를 통해 본 개암십이곡의 성격과 의미
	J-C. Jambon(2005)	· Les enjeux contemporains de la notion de gugok✓

표 1. 계속

분류	연구자(년도)	논제
(무이)구곡도	유준영(1981a)	· 구곡도의 발생과 기능에 대하여✓
	유준영(1981b)	· 실경산수의 연원으로서는 구곡도✓
	유준영(1986)	· 성리학자의 정사 경영과 구곡도
	윤진영(1997)	· 조선시대 구곡도 연구✓
	윤진영(1998)	· 조선시대 구곡도의 수용과 전개✓
	최종현(2000)	· 주자의 무이구곡도✓
	강신애(2005)	· 조선시대 무이구곡도 연구✓
	강신애(2007)	· 조선시대 무이구곡도의 연원과 특징✓
구곡 경관과 관광성	조규희(2006a)	· 유학의 '도통'의식과 구곡도✓
	조규희(2006b)	· 곡운구곡도첩의 다층적 의미
	최종현(2007)	· 원림건축형식으로서의 한국전통산수화 고찰
	이상주(2008)	· 화양구곡, 선유구곡의 완성과정과 화양구곡도
	이은창(1988)	· 한국유가 전통원림의 연구
	최기수(1990)	· 곡과 경에 나타난 한국전통경관 구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
	최기수(1991)	· 덕동구곡에 나타난 전통경관구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
	김광래 등(1993)	· 화양동계곡의 경관특이성과 선호성 분석에 관한 연구
정사건축	임재철과 장동수(2001)	· 벽계구곡의 경관 의미
	최기수(2004)	· 자연에서 얻는 삶의 지혜: 팔경과 구곡✓
	김수진과 심우영(2005)	· 고산구곡에 나타난 율곡의 경관관
	김양식(2005)	· 화양동의 가치 발굴과 문화관광지 개발방안 연구
	노재현(2008)	· 중국 무이구곡의 장소 미학과 하천형태학적 특질✓
	김수진 등(2008)	· 한강 정구(1543~1620)의 무흘구곡 경영과 이상향
	문화재청(2008)	· 전통명승 동천구곡의 유형과 활성화 방향
	유준영(1984)	· 조형예술과 성리학: 화음동정사에 나타난 구조와 사상적 계보
지형경관	남창근과 이재현(2000)	· 조선 중기 정사건축에 나타난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강성원(2003)	· 소현서원에 반영된 율곡의 건축미학에 관한 연구
	조현(2006)	· 동천구곡 경관의 3D 재현: GIS활용기법을 중심으로
기근도 등(2007)	· 경상북도 동천구곡의 지형적 특성	
문화재청(2007b)	· 전통명승 동천구곡 조사보고서	
기근도(2008)	· 경상좌도 동천구곡의 지형적 특성	

✓: 텍스트성 해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직접 인용한 시문해석 또는 문예비평 연구서임
 *: 무이도가 한시번역을 위해 참조한 연구서임

로서 이 분야 연구의 시금석을 마련하였다. 이 후 접근 양상은 다르지만 김광래 등(1993)은 화양구곡의 경관특이성을 정량적으로 구명하고자 하였으며, 최종현(2000)은 주자의 무이구곡도의 발생 연원과 맥락 그리고 국내 수용 변용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전통 산수관과 주자의 무이구곡관의 습합 과정을 추론한 바 있다. 특히 조선시대 모방작(模倣作) 가운데 무이구곡

도 10엽의 형식과 구성 내용 그리고 변용 과정의 고찰을 통해 성리학의 운둔적 세계관과 구곡 경영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구곡의 경영은 '장원(莊園) 조성'이라는 향촌의 확보 방법이었음을 제시하고 다수의 추가 연구 지향점을 시사한 바 있다. 이석해와 이형렬(2001), 임재철과 장동수(2001) 그리고 김수진 등(2008)은 각각 곡은구곡과 벽계구곡 그리고 주흘구곡의 경관적 특성과 의미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김수진과 심우경(2005)은 고산구곡에 나타난 시간과 경관요소의 파악을 통해 울곡의 자연관을 추론하였다. 또한, 최종현(2007)은 원림건축 형식으로 무이구곡의 전래와 수용 과정을 재차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성립되어 현지답사가 가능한 지금까지 구곡문화의 원류로 자타가 공인하는 무이구곡에 대해서는 손오규(2006)가 현장답사를 근거로 문학환경과 산수경계에 대한 개관을 전개시킨 성과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현장연구는 발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이구곡을 중심으로 조경적 관점에서 원림문화의 원전성을 다루고자 했던 연구는 전무하다.

I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텍스트

본 연구에서는 글이라는 눈으로 읽는 문자 언어와 경관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미지 언어 등 2가지 소재의 텍스트가 담고 있는 의미를 해독하고자 한다. 기본 텍스트는 주자의 '무이도가'와 '무이구곡'을 중심으로 구곡시가²⁾에 나타난 형식과 상징, 그리고 문화 활동 전반의 의도나 표현에 주목하였다.

1) 무이도가(武夷權歌)

주자(朱子: 1130~1200)는 복건성 우계 출생으로 말년에 자연과 함께 하며 수양하는 삶을 보냈다. 1183년에 무이산에 무이정사(武夷精舍)를 경영하고 「무이정사잡영(武夷精舍雜詠)」을 지었으며(김문기, 2005) 1184년에는 7언절구(七言絶句)의 10수(十首) 한시인 「무이도가」(표 3 참조)를 지었다. 이 시는 구곡계의 아홉 굽이 절경을 고깃배를 타고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오르면서 차례로 읊은 시로 후대에 중국 문인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성리문화의 전범이자 원류가 되었다.

2) 무이구곡(武夷九曲)

중국 복건성 무이산시 서남쪽 10km 외곽에 위치한 무이산은 1999년 12월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문화유산에 등록³⁾되었으며, 한나라 때의 신인(神人) 무이군이 최초로 이곳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전한다(丘理眞, 2006). 무이구곡이 있는 구곡계는 무이산 7개 풍경구(雍万里, 2006) 중 핵심구

역이자 가장 가치 있는 유람승지(裘國偉, 2006)이며, 무이구곡은 무이산 36봉우리와 37암석 사이 계류가 흐르면서 아홉 굽이의 절경을 이룬 곳으로 제1곡 승진동(升眞洞), 제2곡 옥녀봉(玉女峰), 제3곡 선기암(仙機岩) 또는 선조대(仙釣臺), 제4곡 금계암(金溪岩) 또는 금계동(金鷄洞), 제5곡 철적정(鐵笛亭) 또는 무이정사(武夷精舍), 제6곡 선당봉(仙唐峯) 또는 선장봉(仙掌峯) 제7곡은 석당사(石唐寺), 제8곡 고무암(鼓樓巖) 그리고 제9곡은 신촌시(新村市)를 일컫는다(최기수, 1990; 최종현, 2000; 김문기와 안태현, 2005).

2. 연구내용 및 방법

1) 문헌고찰을 통한 무이도가 해석 및 평가

연구논문(표 1 참조) 등의 문헌조사를 토대로 무이도가의 형식미와 내용미를 파악하였다. 시 해석과 관련하여 참고한 고전과 문예비평서는 표 1에서 ✓로 표시한 바와 같으며, 무이도가 한시 번역에 직접 참조한 연구서는 *로 표시한 김주한(1983)의 논문 등 총 6편이다. 한편, 그림 텍스트로는 「해내기관(海內奇觀)」의 〈무이산 전도〉와 이성길(1562~?)의 〈무이구곡도〉 상의 표기 경물을 분석하였다(그림 2, 3 참조).

무이도가의 내용 분석을 통해 시에서 지시하는 주요 경물과 그 지시사항에 대한 정(情)과 경(景)의 의미를 탐색하는 한편 무이구곡이 국내 구곡 원림에 끼친 텍스트로서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권석환 등(2004), 김문기(2005) 등의 문헌을 토대로 국내 구곡 중 작정자 또는 경영자가 확실하고 현장이 확인된 15개소 구곡⁴⁾ 135개 경물 어휘소를 해체하여 무이구곡 및 구곡계와 비교함으로써 국내 구곡에 나타난 반복과 모방을 통한 구곡 경물 이름짓기(toponymy)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2) 현장평가에 의한 평가

성춘진에서 대나무뗏목(竹筏)에 승선하여 구곡계 총길이 9.5km의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며(그림 1 참조) 주경물 대상의 전후좌우 그리고 시점 변환점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경관상을 기록하였다. 또한 정점관측을 통해 동영상 촬영한 뒤 내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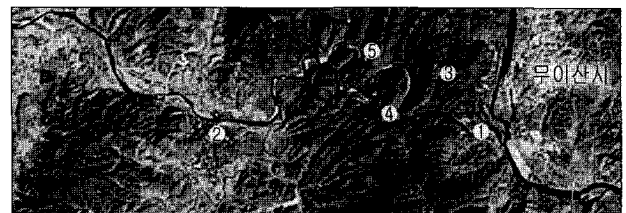


그림 1. 구곡계 현황

범례: ① 시점, ② 종점, ③ 대왕봉, ④ 옥녀봉, ⑤ 천유봉

자료: 구글어스(<http://earth.google.com>)

통해 경관의 특성과 개요를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평가하고 정리하였다. 주자의 무이도가는 1곡에서 부터 9곡까지 물을 거슬러 오르며 노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건상 부득이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점장과 대상(장)이 역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주행 역방향으로 촬영한 사진을 위주로 경물과 주변에서 지각되는 경관요소를 평가하였다.

3) 논의 및 해석의 틀

문헌 고찰과 현장 평가 이외에 해석학(解釋學, hermeneutics)적 접근을 병행하였다. 해석 대상은 '구곡문화의 전승(傳承)'이며 전승이란 과거의 세계를 탐지하고 있는 현존물이다. Gadamer은 "전승의 본질은 언어성을 통해 특징 지워진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강조한 바 있다(오용득, 1995). 무이도거나 무이구곡에 내재한 텍스트성은 첫째, 그것이 구곡 문화에 대한 담론적 서사구조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둘째, 그러한 담론적 서술 및 의미체계는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 전파뿐 아니라 자아 및 자연인식을 위한 해석의 대상, 즉 텍스트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텍스트(text)'란 수용자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생산자의 지식 구조와 전달 의도가 결합되어 나타난 언어적 실체(조영돈, 2006)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시와 그림은 텍스트 자체가 지닌 과거와 현재, 텍스트와 해석자 사이의 대화 형식을 규정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무이도가를 여러 개의 문장 고리로 이루어진 언어 표현 구성체인 텍스트로, 그림과 실경 무이구곡은 계류로 이어진 경관 시퀀스이자 '자연 및 자아의 관계 인식'⁵⁾의 텍스트로 파악하고 양자 간의 문장과 실경의 짜임(textuality)과 그 속성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 논의를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드 보그랑데 드레슬러(de Beaugrande Dressler, 1981)가 제시한 텍스트성의 7가지 기준을 근거로 본 연구 합의 점을 총합할 독자적인 '분석 및 논의 틀'을 마련하였다(표 2 참조). 여기에는 무이구곡의 텍스트적 관점을 드레슬러가 지시한 언어학적 관점, 담화론적 관점, 문학적 관점 그리고 기호론적

관점 유형에 착안하여 대상 텍스트의 유형을 언어, 정신, 현실 그리고 통화의 4단계로 구분한 뒤 텍스트성의 이해관계를 의존과정, 생산자와 수용자 관계, 반복과 모방과정 그리고 전파과정으로 분류하여 읽고자 하였으며,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주로 언어적·기호론적 경관의미와 그 결속구조의 파악과 국내에 영향을 끼친 반복과 모방의 간텍스트성(intertextuality)⁶⁾에 초점을 맞추었다.

IV. 결과 및 고찰

1. 무이구곡과 국내 구곡문화

주자의 무이구곡 경영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산수 수려한 곳에 가거지(家居地)를 정하고 뛰어난 지형경관을 동(洞) 또는 동천(洞天)으로 부르거나, 구곡을 설정하고 정사를 경영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이 과정에서 무이도가를 모방하거나 변용한 사례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겨났으며, 그 결과 조선의 산수시가는 주자의 무이도가에 나타난 상자연의 미의식을 수용하면서 은둔의 정취와 성리학적 사유방식이 결합되어 창출되는 새로운 문예미학을 창도하였다(신두환, 2007). 조선시대 <무이구곡도>의 수용에 관한 대표적인 예로는 안평대군(1418~1453)이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에 경영한 무계정사가 있다(이종복, 2006; 최중현, 2007). 조선 중기 이후 소요당 박하담(1479~1560)은 경북 청도에 운문구곡(雲門九曲)을 경영하며 운문구곡가를 읊었고(김문기, 2005), 퇴계 이황(1501~1570)은 도산십이곡을 지었으며, 율곡 이이(1536~1584)는 해주 석담에 은거하며 무이구곡가를 본 탄 고산구곡가를 지었을 뿐 아니라 무이산 은병봉(隱屏峯)(그림 4의 d 참조)에서 이름을 따와 은병정사(隱屏精舍)를 건립했다. 한강 정구(1543~1620)의 무흘구곡과 무흘정사 경영, 곡운 김수증(1624~1701)의 곡운구곡과 화음동정사 경영이 이어졌으며, 우암 송시열(1607~1689)은 화양구곡을 경영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표 2. 텍스트성 파악을 위한 논의 및 해석의 틀

파악요소		텍스트성의 조건(기준)	파악의도	방법
텍스트 유형	분류			
언어(language)	텍스트적 요인	응결성(cohesion: 결속구조) 응집성(coherence: 결속성)	의존과정	문헌 고찰(분류 및 정리) 현지관찰(인식)
정신(mind)	심리적 요인	의도성(intentionality) 용인성(acceptability)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계	문헌 고찰(기호 및 내용 해석)
현실(reality)	사회적 요인	상황성(situationality) 간텍스트성(intertextuality)	반복과 모방과정	문헌 및 그림 고찰(상황 해석)
통화(communication)	정보처리적 요인	정보성(informativity)	전파과정	문헌 고찰(인식, 해석, 이해)

자료: de Beaugrande Dressler(1981), Einführung in die Textlinguistik. Tübingen: Niemeyer, 정희자(역), 1998: 18.

18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경북 안동의 퇴계천 약 5.5km를 중심으로 퇴계구곡이 경영되었음이 이종휴와 이기순의 '퇴계구곡가'를 통해 밝혀지기도 하였다(김문기, 2008a). 한편, 경북 안동의 병산서원 또한 무이산 은병봉에서 이름을 차용했다고 전해진다. 최기수(1990; 1991)가 처음으로 문헌과 현지조사를 통해 17처(19처) 구곡의 존재를 밝힌 이래, 현재 국내에서 파악된 구곡원림은 약 140처에 이르고 그 중 존재가 확인된 것만도 90처(김문기, 2005; 김문기, 2008b)일 정도로 구곡 원림의 문화 텍스트가 조선 중·후기 광범위하게 향유되었다고 본다.

그림 2의 판화집 「해내기관(海內奇觀)」에는 중국 청대(清代) 동천공이 편찬한 무이산지에서 보이는 무이구곡 전도(7)가 실려 있고 여기에는 각 경물의 이름이 붙여져 있다. 1곡에서 9곡까지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중심 5곡에는 무이정사의 존재(Jambon, Jean-Charles, 2003)뿐만 아니라 어디에 어떤 이름과 형태의 바위가 있는지 감상자의 바람을 충실히 만족시켜주고 있다. 한편, 그림 3은 식산 이만부(1664~1732)가 그린 무이구곡도로 당시 전래된 「무이지(武夷志)」에 실린 그림을 직접 모사하여 그린 것이라 알려지고 있는데 무이산도의 표현법과 상징체계를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연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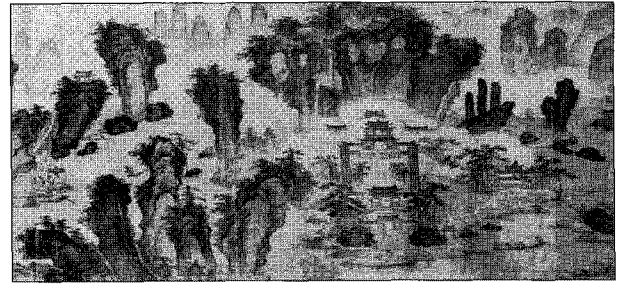


그림 3. 무이구곡도 부분
 자료: 이성길; 저본담채, 숙종연간
 (33.5×398.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007). 최종현(2000: 715)이 기재한 조선시대 모작 10여 종의 무이도가에 대한 제작년도 검토 결과도 대부분 16~17C에 제작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늦어도 최소한 18세기 초반 무이구곡도 또한 모사를 통한 전승이 보편화 된 듯하다.

2. 무이도가의 텍스트성

무이도가에 대한 시인식은 입도차제(入道次第)를 읊은 시라는 인식과 또 하나는 인물기흥(因物起興)을 읊은 시라는 인식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강정서, 1998; 신두환, 2007), 그 대립의 극대화된 것은 제9곡 시에 나오는 '상마우로(桑麻雨露)'의 개념 논쟁으로 전자의 범주로 본다면 하학상달(下學上達)을 의미하는 조도시(造道詩)이며, 후자의 경우, 별유전은 단순한 절승지를 의미하는 서경시의 범주에 간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논의의 틀 속에서 양자 즉, 정(情)과 경(景)을 모두 아우르는 언어 텍스트로 보고 해석에 임하였다.

'무이도가'에 표현된 경관을 원경과 근경으로 구분할 때, 원경은 구곡계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산수이고 근경은 무이구곡을 따라 집중되는 계류와 양편으로 도열되는 경물이 된다. 표 3은 '무이도가' 9수를 정리한 뒤 시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시 속에 담겨진 조망요소와 전설 등의 상징 의미요소를 파악한 결과이다. 서사를 제외한 9곡 중 3곡까지는 '입도의 전이 공간'을, 4곡부터 6곡까지는 '구곡의 중심공간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7곡에서 9곡까지는 '독도의 이상 공간'을 읊고 있다. 1곡에서는 수광석에 새겨진 각자(刻字)와 홍교를, 3곡에서는 홍판교와 가학선관을, 그리고 4곡에서는 대장봉에서의 대장경, 벼가 자라는 굴과 선관 그리고 제시암 각지를 언급하며, 5곡에서는 무이정사 등의 문화경관의 유구를 음미하고 추상함으로써 구곡계에서 점철된 역사문화 흔적을 되짚고 있다. 각 곡의 표현 양상은 경물 중심의 원림의식이 표출되고 있으며 각 곡마다 특정한 장소성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 홍교, 홍판교와 가학선, 금계동 그리고 평촌 등 전설이나 도교적 표상이 씨줄과 날줄로 교호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도학의 자세를 함의시킨 중의법(重義法)적 표현을 통해 선(仙)과 속(俗)의 경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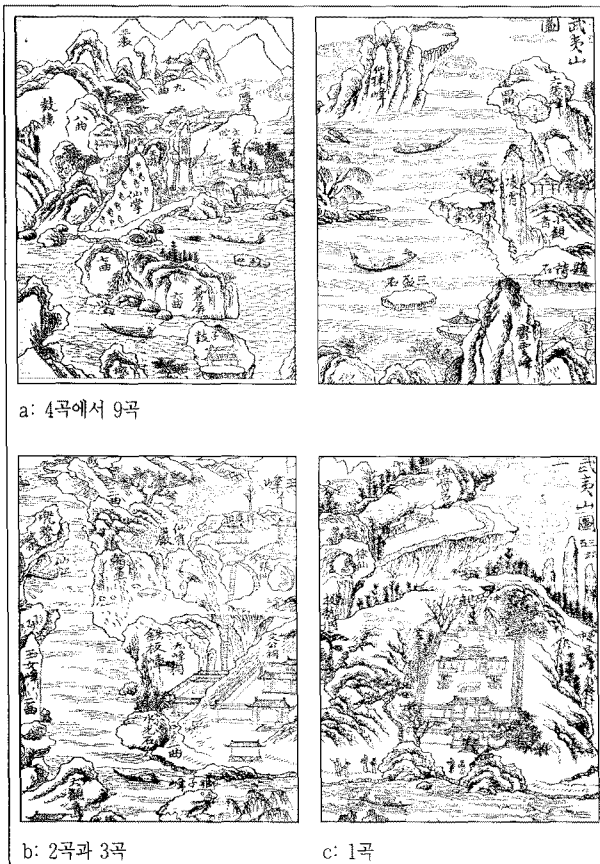


그림 2. 무이산지의 무이구곡 전도
 자료: 고연희, 2007: 150, 필자 재구성

상자연의 미의식이 표출되고 있다.

표 4는 무이도가에서 표현된 경관이미지를 서경적 요소와 서정적 요소로 구분하여 표상적 이미지와 그 상징성을 제시한

것이다. 1곡의 주요 경물인 만정봉 봉우리는 붓과 같고, 그 아래 흐르는 맑고 시내는 벼루와 같다. 계류에 투영된 산봉의 모습을 마치 벼루에 담긴 붓끝의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잠청천

표 3. 주자의 무이도가 시문번역과 시에 등장하는 곡별 주요 경물

구분	무이도가*	참고 한역시	구곡 주경물	주변 경관요소	비고
서사	武夷山上有仙靈 무이산 산정에는 선령이 있어(신선이 있고 ^D) 山下寒流曲曲清 산 아래 차가운(신선한 ^B) 물은 굽이굽이 맑네 欲識箇中奇絕處 그 중 빼어난 절경 알고자 하면 棹歌閑聽兩三聲 뱃노래 두세 가락(삿대소리 ^A) 한가로이 들어보소	A B D	무이산	무이산정 계류 찬 물살	
1곡	一曲溪邊上釣船 일곡 냇가에서 낚싯배에 오르니 幔亭峰影蘸晴川 만정봉이 맑은 물에 잠겨있네(그림자가 청천에 잠겨있어 ^{A, E}) 虹橋一斷无消息 무지개다리 끊어진 후 소식 없고 万壑千岩鎖翠烟 골짜기 암봉에는 푸른 안개 자욱하네(만학천암만 푸른 안개 솟았도다 ^D)	A D E	승진동	대왕봉 만정봉 홍교 수광석 각자, 홍교 흔적	
2곡	二曲亭亭玉女峰 이곡에 우뚝 선 옥녀봉이여 插花臨水爲誰容 누구를 위하여 꽃을 꽂고 물가에 서 있는가? 道人不復荒臺夢 그대 막을 도인은 없는데(양대의 꿈을 꾸지 못하고 ^{C, D}) 興入前山翠幾重 흥겨워 앞산 들어가니 푸르름이 첩첩이네(몇겹인가)	C, D	옥녀봉	옥녀봉	입도의 전이 공간
3곡	三曲君看架壑船 삼곡에서 그대는 가학선을 보았는가 不知停櫂幾何年 노젓기를 멈춘지 얼마인지 모르겠네 桑田海水今如許 무상한 세월(뽕나무밭 바닷물되는 일 ^D)이 지금 이와 같으니 泡沫風燈敢自憐 물거품 같고 바람 앞 등불 같은 가련한 인생이여(포말과 풍등이라 감히 절로 안타깝다 ^B)	D, E	선조대	가학선 홍판교와 가학선관	
4곡	四曲東西兩石巖 사곡이라 동서 두 바위에(우뚝 솟은 암벽에 ^A) 巖花垂露碧監毛 바위에 핀 꽃은 이슬을 머금은 채 무성하네 金鷄叫罷無人見 금닭이 울어 아침을 여는데 보는 사람이 없고(인적 없고 ^A) 月滿空山水滿潭 등근달(달빛 ^D)은 공산에 가득하고 물은 여울에 가득 차네	A, D	금계동	대장봉, 선조대 금계동, 와룡담 대장봉-대장경, 벼가 자라는 굴, 선관, 제시암 각자	
5곡	五曲山高雲氣深 오곡은 산 높고 구름 깊어 長時煙雨暗平林 언제나 안개비에 젖어 평림이 어둑하네 林間有客無人識 숲속의 나그네 아는 사람 없으니 欸乃聲中萬苦心 사공의 노랫소리에 만고수심 깊어지네(어기여차 소리속 만고마음이라 ^C)	C	무이정 사	은병봉 평림 무이정사	구곡의 중심 공간
6곡	六曲蒼屏繞碧灣 육곡의 푸른 병풍바위(창병봉 ^{C, D})는 시퍼런 물굽이 둘러 있는데 茅茨終日掩柴關 띠집(오두막 ^B)은 종일토록 사립문이 닫혀있네 客來倚欄巖花落 객이 찾아와 노에 기대어 바위에 꽃이 떨어지는데 猿鳥不驚春意閑 원숭이와 새가 놀라지 않고 봄빛은 완연하네	C, D	선장봉	쇄포암 창병	
7곡	七曲移船上碧灘 칠곡에 배를 몰아 푸른 여울에 올라서 隱屏仙掌更回看 은병봉과 선장암을 다시금 돌아보네 却憐昨夜峰頭雨 어여빠라(도리어 ^D) 지난밤 봉우리(봉두 ^D)에 비 내리더니 添得飛泉幾道寒 나는 듯한 물줄기(갑자기 생긴 폭포 ^{B, E}) 몇줄기런가(승천에 보태어져 몇줄기의 물 길을 이루는고 ^D)	B D E	석당사	달공탄 은병선장 폼자암 쌍유봉	
8곡	八曲風煙勢欲開 팔곡에 바람이 불어 구름은 개려하고 鼓樓巖下水濺洄 고루암 아래에는 물이 돌아드네(돌아가네 ^C) 莫言此處無佳景 이곳에 절경이 없다고 말하지 말게 自是遊人不上來 여기부터 속인은 올라갈 수 없네(유람하는 구경꾼들은 올라오지 않으니 ^D)	C, D	고루암	마반석, 수어석 낙타봉, 상비암 방생담, 폼자암 쌍유봉교, 판전편	득도의 공간
9곡	九曲將窮眼豁然 구곡에 다다르니 눈앞이 활연히 트이고 桑麻雨露見平川 상마에 맺힌 이슬 평천(조용한 시내 ^D)을 바라보네 漁郎更覓桃源路 뱃사공은 다시금 무릉도원 가는 길을 찾지만 除是人間別有天 이곳이 인간세상의 별천지(선계 ^D)라네	D	신촌시	평천	

자료: A: 김주환(1983)과 이민홍(1985: 1999), B: 신두환(2007), C: 김병국(2003), D: 손오규(2004b), E: 김문기(2005)

*무이도가의 국문 번역은 위와 같이 번역시 내용을 비교 참조하여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으며 차이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병기함.

(蘩晴川)으로 표현함으로써 물속에 투영된 인경(引景:pulled scenery)⁸⁾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곡의 옥녀봉⁹⁾은 의미적으로 주의해야 할 '경색(景色)'의 도상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구곡계 경물 중 규모에 비하여 가장 명료성(legibility)과 시인성(visibility)이 높은 랜드마크이자 아이스톱(eye-stop)이다. 5곡에서 6곡에 이르는 굽이는 선유봉에서 부감되는 경관(그림 4g 참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곡이라는 공간 및 이미지 정체성(imageability)이 가장 잘 표출되는 되는 곳이며, 무이정사가 위치한 곳으로서의 '강학과 은거의 장소'로서의 영역성(territoriability)이 강한 구역이다. 만정봉, 옥녀봉, 대장암, 은병봉, 선장암, 고루암 등의 수직적 경물은 고깃배에서 조망되는 양관(仰觀)에 의한 체험의 대상이며 시선은 전방을 향하지만 강한 사행(蛇行)적 곡의 특성상 뒤로 떨어진 주 대상이 다시 조망권에 들어오게 된다.

구곡계 경관의 일차적 특성은 산봉과 계류의 수직 수평적 경관대비가 뚜렷하다. 또한, 무이산의 대표적 지형 특질 중 하나는 단하지모(丹霞地貌)¹⁰⁾의 영향으로 거친 붉은색 사암이 오랜 시간 동안의 풍화 및 퇴적작용 등에 따른 유류수 침식과 용식 등 지질운동으로 인해 특이한 색채미를 발현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또한,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물굽이와 배의 위치에 따른 경관 역전의 박진감과 흥미를 부여함으로써 경관의 역동성이 느껴진다. 또한, 웅장한 기암 절경의 정적 소재와 유창하게 흐르는 강물의 동적 교차가 경관이미지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이구곡은 코스모스와 카오스, 빛과 어둠의 일원적 대비를 통한 실존적 공간(existencial space) 인식이 표현되고 있다.

무이도가에 나타난 자연경관에 대한 흥취적 텍스트 요소는 경물의 아름다움과 자연현상을 통한 주자의 감정을 이입하는 등 무이산 승경에 대한 선경후정(先景後情)으로 정경교롱(情景交融)의 반복적 결속구조를 주요 텍스트성으로 하고 있다. 김덕현(2008)은 동천구곡의 유형과 사례분석을 통해 지형적 규모의 차이에 따라 국내 구곡의 유형을 곡류심유형(曲流尋游型)과 계곡각자형(溪谷刻字型)으로 분류한 바 있다¹¹⁾. 무이구곡은 일곡에서부터 구곡까지 배로 거슬러 유람할 수 있는 여건 이면서 또한, 계곡각자의 양상이 중복 표현되는 이중적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역으로 본다면 국내구곡은 그 지역의 하천 지형학적 특성에 부합되는 2가지 구곡 텍스트로 분화 발전되었음을 의미한다.

3. 무이구곡의 텍스트성

앞서의 무이도가 분석 내용을 토대로 현장관찰과 무이산지의 무이산도 등 무이구곡도 살펴보기 및 문헌고찰을 통한 무이구곡의 구곡원림으로서의 원형적 요소를 해석하였다. 또한, 필

표 4. 곡별 형식미와 상징미적 텍스트 요소

구분	등장 경물	구분	표상적 이미지	상징성
1곡	만정봉	경	청천 계류에 투영된 산봉	벼루에 담긴 붓끝의 이미지
	홍교	정	도교적 신선의 자취, 선계와 속계의 교감	별천지로의 통로
2곡	옥녀봉	경	옥녀봉의 수려한 경색, 옥녀 삽화임수(玉女 插花臨水) 옥녀봉-경대	옥녀봉-철관장-대왕봉의 전설
		정	학문의 입도(入道) 옥녀봉 상부의 송백-꽃을 품은 모습	경계해야 할 색(色)
3곡	홍판교와 가학선관	경	천에절벽의 신비감	유구함
		정	세월의 덧없음	인생무상, 상전벽해
4곡	대장봉과 선조대	경	우뚝 솟은 쌍봉, 이슬 맺힌 바위꽃과 초목	생명력
		정	경관의 숭고미	
4곡	금계동과 와룡담	경	대장봉 암벽의 금계동굴, 무이구곡의 최심처 와룡담	적막함, 인적 없음
		정	쓸쓸한 한적감, 전설 속으로 사라진 새벽을 알리는 금담	인생무상, 상전벽해
5곡	은병봉	경	높은 산, 깊은 구름	중심성, 거처
		평림	무이정사로 이르는 초입	
6곡	쇄포암 (또는 선장암)	경	푸른 병풍, 푸른 물굽이	고립감
		정	물빛과 산빛의 색상대비, 청(淸)과 속(寂)의 교용	기운생동
7곡	달공탄과 석당	경	달공탄에서 바라본 선장암, 빠른 물결과 솟은 바위	수직·수평적 대비감
		정	물결을 거슬러 오르는(학문과 산수 사이의) 긴장감	승천
7곡	은병봉과 선장봉	경	옥곡의 경물이 제차 조망됨	회고
		정	회고의 감회	
8곡	고루암	경	안개를 걷어내는 바람, 휘감아 도는 강물	공간 전이
		정	응축의 장	
9곡	평천	경	탁 트인 봄의 평원, 이상세계 도원	별유천(別有天), 이상세계, 유토과야
		정	득도(학문 완성)를 실천하는 곳	

자의 선행연구(노재현, 2008)를 통해 무이구곡의 장소적 속성과 하천형태학적 결속 특성을 텍스트성으로 재조명하였다. 텍스트로서의 이해 과정에 대해 김도남(2002)은 첫째, 기호를 해독하고 내용을 마음속에 표상하는 활동, 둘째, 표상한 내용을 구분하고 재조직하여 해석하는 활동 그리고 셋째, 텍스트를 해석하여 얻은 내용을 수용자 본인의 생각과 연결함으로써 새롭게 깨달아 이해하는 활동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된 무이도가의 내용과 무이구곡의 경관의미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굽음의 형태미학과 물돌이

일반적으로 곡이라는 용어 자체는 물의 굽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선적인 것으로부터 방향과 고저의 변화 그리고 옹은 것으로부터 이완된 상태로(최기수, 2004), 곡은 곡(谷)을 동반하게 되며, 물의 굽이굽이에 따라 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곡의 원림은 물이 담긴 곡(谷)이라고 하는 속성을 수반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무이산 36개의 봉우리와 4개의 계곡 그리고 11개의 골짜기(雍万里, 2006)는 곡(曲)을 형성하기 매우 유리한 곡(谷)으로 구성된 지역이다. Jambon, Jean-Charles(2005)은 구곡의 속성을 가락(chants) 또는 굽이(bend)로 정의하면서 이는 토지-경관(pays-paysags)의 관념과 통하며 인간과 자연의 분리를 만들어낸 통합적 관점의 '장소-공간' 개념으로 인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를 조금 확대하면 장소, 곳, 땅, 토지로 대표되는 무이구곡에서 연유된 조선의 구곡 또한, 한국인의 토포스(김열규, 2003)를 상징하는 자리이자 터 그리고 터전으로서의 형태 미학성이 감지된다.

청대의 랍진략(藍陳畧: 董天工, 武夷山志, 卷 21)은 "서른 여섯 봉우리와 아홉 구비가 마치 가운데를 엮어서 꿰뚫어 나아가고 있는 듯한데..."라고 설명하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무이산은 산수 경물의 특이함과 지형적 다양함이 돋보이는 곳이다(그림 4a-4j 참조). 5곡과 6곡 사이에서는 하천 굴곡부 사행(蝸行)에 따른 경관 묘미가 특출하게 나타나며(그림 4k 참조), '도가(權歌: 노 저으며 노래하기)'라는 행위가 일차적으로 가능한 곳이었다. 이 때 물은 세상과 경계를 이루며 곡은 세속적인 것들과 경계되는 독립적 문화의 표상을 의미하는 상징적 요소였다. 그러나 이러한 텍스트성을 가진 국내 구곡은 드물다. 노재현(2008)은 무이구곡의 하도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며 물돌이수는 총 11회수로 국내 대표적 구곡인 화양구곡 4회, 선유구곡 3회보다 월등히 다수 구부러지는 하천지형학적 특성을 지적하면서 무이구곡의 하천굴곡도는 2.15(A/B)이었으며, 사행과 장은 국내 하천에 비해 1.5~1.8배 정도가 큰 특성을 보여 국내 구곡에 비해 하천 사행성(蛇行性)이 대단히 강한 것을 증명한다. 이를 볼 때 무이구곡이라는 텍스트성의 지형 조건을 만족할만한 국내의 계류는 드물었지만 의미적 '굽음의 미학'으로서의 텍스트성은 유감없이 전승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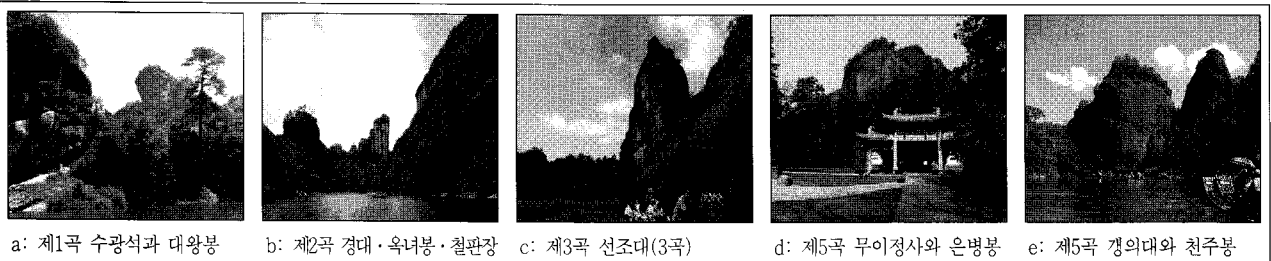
2) 원림 영역성의 표현인 각자(刻字)와 이름붙이기

제1곡 승진동 구역에는 좌로는 만정봉, 우로는 대왕봉(그림 4a 참조)이 포치하고, 멀리 옥녀봉(그림 4b 참조)이 원경으로 지각되며 옥녀봉과 동일한 전설을 공유한 철관장과 수광석(水光石) 등이 펼쳐진다. 암벽에는 조도암이 쓴 '구곡계'와 왕수례가 쓴 '점입가경(漸入佳境)' 방개가 쓴 '인입입승(引人入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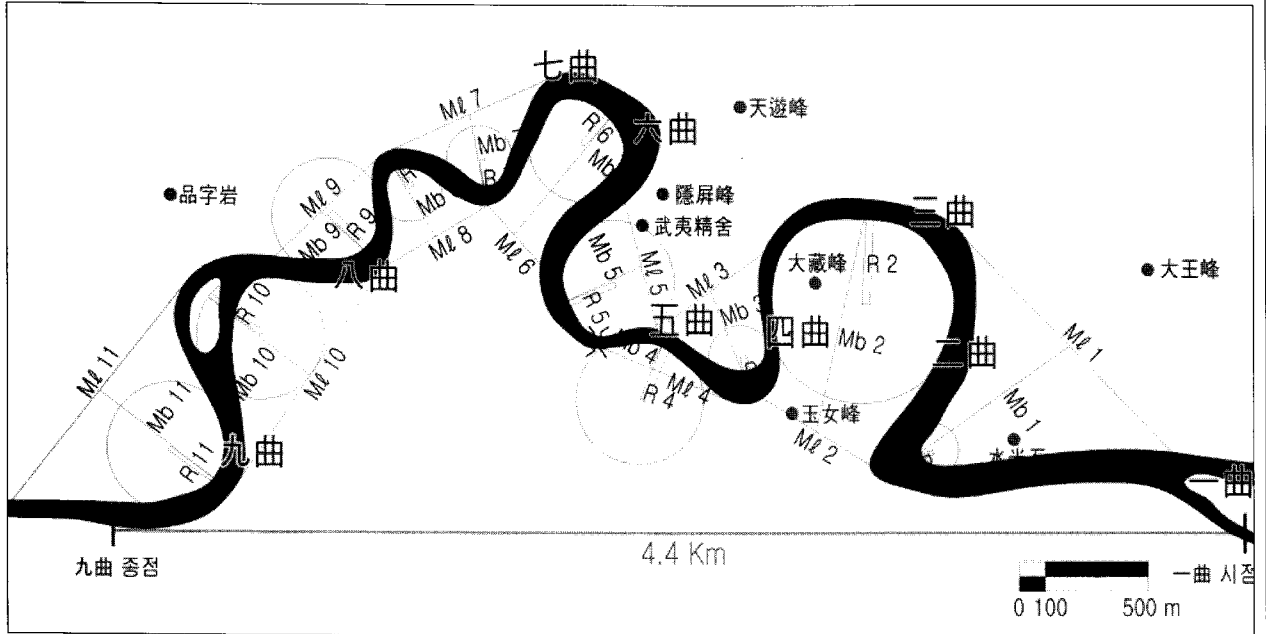
勝)' 이외 필자가 밝혀지지 않은 '벽수단산(碧水丹山)', '연비어약(鸞飛魚躍)', '산수기관(山水奇觀)'(권석환 등, 2002: 丘理眞, 2006)' 등 무이구곡의 경관 이미지를 암시할만한 많은 각자가 아로새겨져 있다. 수광석뿐만 아니라 구곡계 전반에 점철된 다양한 각자(刻字)들은 특정한 공간적 지위와 의미는 물론 특정 개인의 회구를 담는 문화적 상징물이 되고 있다. 바위 글씨는 글씨와 관련된 사람의 사상이나 생활철학을 보여주는 바(허균, 2002), 김해경과 최기수(2007)는 이와 같은 행위를 "바위라는 물성(物性)으로 영원불변성을 포함하여 바위에 글을 새기는 최소한의 가시적 행위로 비가시적 세계를 지향하는 행위"로 보았다. 한편, 정원에 있어 암각의 행위는 회화에서의 낙관(落款)에 비유되기도 하는데(유병림 등, 1986), 정원의 소유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글자 자체에서 자신이 품고 있는 정원에 대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나타낸다고 본다(박희성, 1997). 이를 볼 때 각자는 구곡원림문화의 특징으로 손오규(2002)가 구곡 문화의 기원은 물을 중심으로 경처에 따라 나누어 명명함으로써 원림의 경역을 설정하는 '경승 중심의 원림'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의미적·상징적 공간 영역성의 한정을 목표로 한 바위 각자행위에서 비롯한다. 또한, 원림 경역은 하천이라는 동질적 연계 공간 중 바위나 계류 등이 수려하고 특이한 곳을 찾아 '이름을 붙임(地名: toponomy)'으로서 시작되었으며, '이름 붙이기'는 연속적 상황에서 한 대상을 분리해 내야만 가능하였다(고정희, 2005). 이 때 명명(命名)이란 연속적인 상황 중 일부분을 '사물로 만드는 일(making thing)'이며 이로써 구곡 명명물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닌 '만들어진 것(배수찬, 2002)'이 되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창명과는 별도로 기존 지명을 개명(민주식, 1999)하는 현상도 발생하기도 하였다. 8곡의 상비암(象鼻巖), 락타봉(駱駝峰), 청와석(青蛙石), 묘아석(貓兒石), 해개석(海峽石) 등 다양한 동물 형상에 대한 이름붙이기가 되풀이된다. 이로서 '시퀀스(sequence)'라는 태생적 경관 특성을 갖는 하천은 의미 있고 분절된 독립된 장소이자 경관인 구곡원림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바위 각자는 구곡원림의 기본 텍스트임을 표상화하는 대표적 산물이며 무이구곡의 텍스트성은 '각자'와 '이름붙이기'를 통한 영역성 확보로 사색적 관조가 이루어지는 정신적 풍경이 되었다.

3) 의미경관에 대한 성찰과 문화적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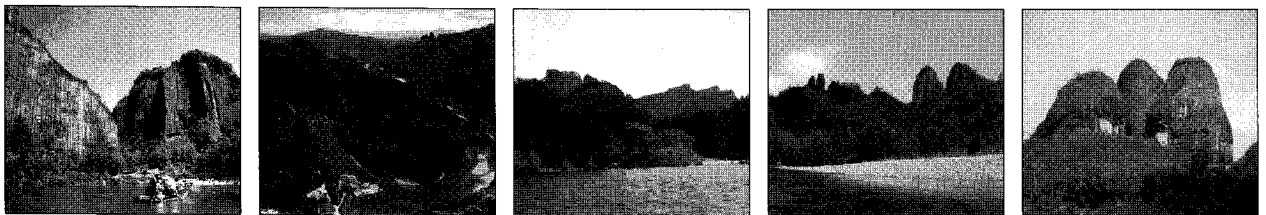
제2곡은 옹혼한 아름다움을 지닌 수직적 지형경관 옥녀봉이 가로막고 있는데, 구곡계 다른 암봉과는 형체미는 물론 색채미가 각별함으로 인해 대표적 초점경관으로 지각된다. 옥녀와 대왕과의 러브스토리 등은 무이구곡이 국내 구곡에 미친 내면적 텍스트성이다. 2곡은 주변 암봉과는 다른 형상으로 이 구역의 변화 있는 스카이라인을 주도하고 옥녀봉 우측으로 굽히 곡이 꺾이는 관계로 봉림(峰林)에 의해 닫혀진 경관으로 지각된다.



a: 제1곡 수광석과 대왕봉 b: 제2곡 경대·옥녀봉·철판장 c: 제3곡 선조대(3곡) d: 제5곡 무이정사와 은병봉 e: 제5곡 갱의대와 천주봉



k: 무이구곡의 물들이 수



f: 제5곡 선장암과 은병봉 g: 제5곡과 6곡 천유봉 거암, h: 제7곡 삼양봉 무이계 i: 제8곡 풀자암과 쌍유봉 j: 제8곡 풀자암

그림 4. 무이구곡의 하천 형태학적 특성과 각 곡의 주요 경물
자료: 노재현, 2008: 8 재인용

옥녀봉 주위에는 옥녀가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옥향담(浴香潭), 얼굴 단장을 하던 경대(鏡臺), 철판장 그리고 인석(印石) 등 옥녀의 러브스토리와 관련된 경물이 즐비하다. 3곡 선조대는 강태공이 고기를 낚던 곳이라 하며 무이산 세 신선이 항상 모여서 연회를 베풀었다는 연선암과 가학선 그리고 홍교의 문화경관적 요소가 남아있는 소장봉이 있다. 특히 소장봉의 가학선관(架壑船棺)과 홍판교(虹板橋)¹²⁾는 '무이도가' 시상의 중요한 소재이며 고월인(古越人)¹³⁾이 거처였음을 알려준다. 유. 불. 선이 공존하는 무이산은 옛날 월나라에 속했던 곳으로 팽노인

이란 신선이 다스렸다는데, 두 아들 팽무, 팽이의 이름을 따 '무이산'이 되었다. 사람들은 "동주에서 공자가 나왔고 남송에는 주자가 있으니, 중국의 옛 문화는 태산과 무이로다.(東周出孔丘 南宋有朱熹 中國古文化 泰山與武夷)."란 말로 무이산의 유구함을 칭송한다. 금담이 있었다는 제4곡 금계동은 도가의 대장경을 숨겼다는 대장봉과 선조대가 마주 보고 있는데, 두 봉우리는 암산으로 되어 있어 식생 생육마저 어려운 벼랑이며 그 아래 구곡계의 가장 깊은 곳인 와룡담과 건너편에 제시암이 배치되어 있다. 무이산(Mount Wuyi)은 1999년 UNESCO 세계

자연 및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으로서 무이산과 구곡계는 인간의 행위와 자연과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소산이며, '시간에 의해 전승되며 역사와 문화가 개입된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 공인된 곳이다. 이렇듯 무이구곡은 주자시대 이전에도 인간과 관련된 신앙, 종교 등 다수의 예술활동과 관련, 의미경관적 요소가 꽃 피웠던 곳이며, 특히 주자의 은거 이후 성리학적 성찰을 통해 유전해 온 문화적 풍경으로서 무이구곡의 텍스트성을 함축한다.

4) 감각적 투시의 시선으로 본 표상성

무이구곡 제6곡은 신선의 손바닥 같은 형상을 보인다는, 일명 쇠포암이라고도 하는 선장봉(仙掌峯)(그림 4f 참조)이 거대한 바위병풍 형태로 있는데 마치 치마를 펼쳐 놓은 듯하다(그림 2a 참조). 무이산 최대의 직각 돌벼랑인 선장암의 표면질감은 규칙적인 것처럼 굵아굵아 물결치듯 굴곡이 있어 햇빛이 비치면 스펙트럼처럼 흑백의 입체감을 드러낸다(손오규, 2006). 제5곡에서 배를 저어 제6곡에 들어서서 뒤를 바라보면 선장봉의 형상을 제대로 조망할 수 없다. 오히려 무이구곡 제6곡에서 제7곡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뒤를 돌아보면 거대한 벼랑에 세로로 줄을 그은 선장봉의 역동적 표상성이 강하게 노출된다(김문기와 안태현, 2005). 따라서 이런 물의 흐름은 각 곡의 공간을 단절시키고 독립된 산수경관을 형성시킨다. 현재는 천유봉 정상에 이르는 과정에서 펼쳐지는 제5곡과 제6곡의 일망무제하게 펼쳐지는 부감경(그림 4g 참조)은 무이제일경(武夷第一勝景)으로 비유되고 있다.

무이풍경구에는 총 36봉 99암에 각각의 명칭이 부여된 것(雍万里, 2006)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봉, 암은 무이구곡뿐만 아니라 무이산의 경관 특성을 가장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요소이다.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무이구곡 승처 9개 경물요소는 물론 앞서 무이산지, 구곡 전도(그림 2 참조) 상의 확인되는 구곡계 경물 그리고 중국 무이산 공식 홈페이지 상의 경물요소 검토 종합하여(표 6 참조) 국내 구곡에서 빈도 높게 나타난 경물요소(미주 6 참조)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 결과, 무이구곡에서 보이는 경물인 암(巖), 대(臺), 동(洞) 등이 주로 발견되지만 담(潭), 소(沼), 벽(壁), 문(門), 석(石), 협(峽), 병(屏), 퇴(瀨), 계(溪), 정(亭) 그리고 폭(瀑) 등의 경물이 추가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무이구곡 중 옥녀봉(2곡), 선장봉(6곡) 그리고 구곡계 명명 경물 중 대왕봉·만정봉(1곡) 대장봉(4곡), 은병봉(5곡), 쌍유봉·삼양봉(7곡), 낙타봉(8곡) 등 총 16회나 등장하는 '봉(峰)'은 국내 구곡에서는 옥화구곡의 제5곡 은봉과 제8곡 신선봉 단 2개소(1.5%) 만 발견되는 반면 국내 구곡은 무이구곡에 비해 산상의 수직요소 외에 산하의 국부적 수평요소가 우세 경관요소로 작용함에 힘입어 소(沼), 담(潭), 석(石) 등의 이름 붙이기 비중이 높음을 보게 된다. 따라서 국내 구곡의 수직적 경물의 수직적 지각 강도는 무이구곡의 그것과 비교할 때 상대

표 5. 국내 구곡과 무이구곡의 경물 비교

순위	경물	의미	무이산 관련 경물	
			횟수(빈도)	무이구곡(구곡계)
1	암(巖: 岩)	가파른 바(높고 험한 바위)	24 (17.6%)	대왕암·서선암·환골암(1곡), 선관암(2곡), 선기암·선학암·서선암·선유암·차전암(3곡), 금계암(4곡), 쇠포·선장암·향성암(6곡), 풍지암·성고암·북랑암·랑배암(7곡), 고루암·상비암(8곡), 백운암·장암(9곡)
	대(臺)	높고 평평한 곳		경대·선방대(2곡), 선조대·표어대(4곡), 경의대(5곡)
2	담(潭)	깊은 소	15 (11.0%)	외룡담(4곡), 방생담·우고담(8곡)
3	동(洞)	굴짜기	7(5.1%)	승진동(1곡), 금계동(4곡), 다동·호리동(5곡), 도원동(7곡)
4	소(沼)	늪	6(4.4%)	해당 없음
5	벽(壁)	올타리 벼랑 벽	5(3.7%)	해당 없음
6	문(門)	출입구	4(2.9%)	동천문·석문(1곡)
	석(石)	바위		수광석·삼고석·대소관음석(1곡), 인석·현묵석(2곡), 장선석(3곡)·시경석·계사석·삼배석(4곡), 마반석·수귀석·낙타석·해개석·수어석·인면석·어개석·청와석·묘인석(8곡)
7	협(峽)	양쪽이 막힌 골	3(2.2%)	해당 없음
	병(屏)	병풍 형태의 담		창병(6곡)
	퇴(瀨)	급한 여울		해당 없음
	계(溪)	시냇물		구곡계(1곡-9곡)
	정(亭)	정자		철적정(5곡)
	폭(瀑)	폭포		해당 없음
8	탄(灘)	여울가	2(1.5%)	달공탄(7곡)
	로(爐)	화로		해당 없음
	추(湫)	못, 소, 강터		해당 없음
	애(崖)	급한 벼랑		해당 없음
	봉(峰)	봉우리		만정봉·대왕봉(1곡), 옥녀봉·사지봉(2곡), 선장봉·승일봉(3곡), 대장봉(4곡), 은병봉·절순봉(5곡), 선장봉(6곡), 삼양봉·삼층봉·천호봉(7곡), 쌍유봉·낙타봉(8곡), 제운봉(9곡)
	굴(窟)	굴, 움		해당 없음
9	산(山)	산	1(0.7%)	해당 없음
	진(津)	나루터		유계진(5곡)
	암(庵)	암자		해당 없음
	평(坪)	평평한 곳		해당 없음
	연(淵)	깊은 못		해당 없음
	천(川)	냇물		평천(9곡)
	곶(串)	꼬챙이		해당 없음
	령(嶺)	산병우리 재		해당 없음
	판(板)	널빤지		해당 없음
	서원(書院)	서원		문공서원(5곡)
	정사(精舍)	정사		무이정사(5곡)
	숲	숲		평림(5곡)
	기타			3(2.2%)

주: 밑줄 친 것은 무이도가에 언급된 이칭을 포함한 주경물을 의미
 자료: 무이구곡 관련 경물은 국내 구곡에 등장하는 주요 경물을 기준으로 중국 「해니관」, 판도와 중국 무이산 공식 홈페이지(<http://www.whwy.org>) 그리고 현장답사에 의해 관찰된 경물을 표시한 것임.

적으로 반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무이구곡이 보이는 봉림(峰林) 경물 요소의 랜드마크적 표상성은 무이구곡의 고유한 텍스트성이 아닐 수 없다.

5) 도교와 성리학적 토포스로 본 초월적 풍경

심우영(2006)은 무이산 경물을 소재로 한 총 42편의 주자시 분석 결과를 인용하여 주자가 무이산에서 지향한 바를 ‘산수미에 대한 발견’, ‘은일자락의 정취’와 함께 ‘선계에 대한 염원’으로 규정한 바 이는 무이구곡의 내적 텍스트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준 표현으로 보인다. 5곡에서 멀지 않은 곳의 도원동(桃園洞)에는 현재 도가의 유적이 자리하며 바위에 새겨진 노자의 석상은 이 지역이 도가의 근거지임을 알려주며, 주자 은거 이후 무이산은 성리학의 성지로 도남이굴(道南理窟)이란 명칭을 얻게 된다(김문기, 2005). 8곡에서는 삼교봉이라고도 하는 폼자암(그림 4j 참조)이 조망되는데, 이는 무이산에는 유불도의 삼교가 모두 존재하는데 유교로 말하면 주자의 무이정사요, 불가로 말하면 극락국이요, 도가로 말하면 도원동이 된다. 또한, 2곡의 선방대(仙榜台)와 선관암(仙館岩), 3곡의 선유암(仙遊岩), 4곡의 선조대(仙釣台), 6곡의 천유봉(天遊峰)과 선장봉(仙掌峰) 등은 모두 신선과 관련된 도교적 발상의 이름불이기 유형이다. 3곡의 홍교는 만정봉의 전설 속 소재이며, 도교적 신선의 자취를 대신하는 상징어이다. 또한, 홍판교와 가학선, 금계동 그리고 평촌 등 전설이나 도교적 표상이 반복되며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4곡 제시암에 각자된 ‘승진원화동천(升眞元化洞天)’은 도교의 이상향 또는 근본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상향으로 들어가는 골짜기’라는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노재현,

2008). 이는 최기수(2004)가 구곡이 설정된 곳은 경승에 해당되며 무릉도원인 선경을 의미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선경은 선계이고 신선이 거처하는 현실적 이상향의 공간으로 생각하였으며, 청류가경(清流佳境)에 몰입하면 자연진속(自然塵俗)을 잊게 되고, 스스로 선경으로 착각하여 우화등선(羽化登仙)하는 곳으로 입지를 정하였다”고 함에서 볼 수 있듯이 장소, 곳, 땅, 토지로 대표되는 무이구곡에서 연유된 조선의 구곡 또한 토포스(김열규, 2003)를 상징하는 자리이자 터 그리고 터전으로서의 공간이란 말이 전혀 무색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무이구곡에서 반복적으로 이해되어지는 성리학적 토포필리아(Topophilia)의 향유는 인간 자아의 존재론이 시작되는 곳으로 스스로의 존재 확인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처지를 사랑해야 하는 조선 사대부들의 자연을 보는 방식으로서의 전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구곡원림의 텍스트성 중 가장 지향점이 높은 사유 방식이기도 하다.

상기 다섯 가지 결속 언어는 일종의 정신문화의 한 단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로스만(Lotman, et al, 1975) 등이 말한 제2의 언어인 ‘문화’ 안에 존재하는 텍스트 즉, 문화텍스트(cultural text)의 개념이며 특수한 종류의 메시지로 조선 사대부들에 의해 인식되었다. 그러나 국내 전승과정에서 ‘아홉의 물돌이’라는 문화텍스트 고유의 결속력은 유지하면서 특유의 지역성을 담아 각지를 통한 약호(略號) 혹은 문화적 규칙이나 관습적 구곡시의 창작 등을 통해 정착되면서 국내 구곡문화의 경관원형을 지배하는 요소가 된 것으로 추론된다.

이와 같은 해석과 분석을 통해 표 6과 같이 무이도가와 무이구곡의 텍스트성을 지배하는 요인 등을 정리하였다.

표 6. 무이도가와 무이구곡의 텍스트성 지배요인

파악 요소 분류	이해과정	근거	텍스트 구분			
			무이도가(문자 텍스트)		무이구곡(그림 텍스트)	
			구곡시가의 창작	구곡시의 비평	구곡원림의 경영	구곡도의 제작
텍스트 요인	의존과정	결속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이산지 등 중국 문학 조선 향유 · 풍류와 도학의 성취 수단 · 선경후정(先景後情)의 정경교통성(情景交融性)에 의한 결속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이산지 기록 등 중국 문학의 조선 향유 · 무이지(武夷志) 등에 의한 무이구곡도 전파 · 다수의 굵은 물돌이 · 역주행을 통한 햇빛이 풍류 	
심리적 요인	생산자 수용자 관계	의도와 용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송의 대상, 주자(주자학) · 유·불·선 문화의 중흥 · 사대부의 경제제민(經世濟民)적 사고관 · 인간-장소에 대한 애정의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불이기’를 통한 영역성의 확보 · ‘장소-공간’ 개념으로 본 인식 · 장소애(topophilia)의 표현 · 도학의 성취와 이상향에 대한 동경 	
사회적 요인	반복과 모방과정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화일체(詩畫一體)의 문화 풍조 · 주자의 사상과 자연관의 수용 · 산수지락(山水之樂)의 성리학적 자연관 · 퇴계 및 율곡 등에 의한 구곡문화의 파급과 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자의 정사(精舍) 경영 · 기이·기괴·기형-기(奇)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 퇴계 및 율곡 그리고 우암 등 구곡문화의 파급과 고양 · 유가의 수신제가(修身齊家) 과정과의 동일화 · 구곡 모방 문화의 확산 	
정보처리 요인	전파과정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전(口傳) · 무이정사잡영, 무이산지 · 다수의 구곡시 · 한시(漢詩)·시조(時調)·가사(歌辭)로 차운 및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전 및 현장 답사 · 무이정사잡영, 무이산지, 무이구곡도 · 국내 다수의 구곡시와 구곡도 · 도상적(圖上的) 상징체계로서의 인식 	

V. 결론

본 연구는 '무이구곡'이라는 텍스트와 '국내 구곡' 하이퍼텍스트간의 관련성을 무이도가와 무이구곡(도)라는 텍스트가 담고 있는 경관의 내용미와 형식미를 해독하고, 이에 따라 국내 구곡원림 문화 발상지 무이구곡의 원전성(原典性: textuality)의 기본 속성을 해석하는 한편 국내 양산되고 정착한 구곡원림 문화의 구성요인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무이도가를 여러 개의 문장 고리로 이루어진 언어 표현 구성체인 텍스트로, 또 무이구곡은 계류로 이어진 경관 파노라마인 시퀀스에 대한 '자연 및 자아의 관계 인식' 텍스트로 파악하고 문장과 실경의 짜임(textuality)과 그 속성에 주목하기 위한 방편으로 de Beaugrande Dressler(1981)의 텍스트성의 7가지 기준을 근거로 '분석 및 논의 틀'을 통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의 유형을 언어, 정신, 현실 그리고 통화의 4단계로 구분하고 무이도가와 무이구곡의 형식과 의미내용 분석을 통해 해당 텍스트 또는 그 문화가 수용되어 전개되고 정착되는 양상을 의존 과정,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계, 반복과 모방과정 그리고 전파과정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자의 무이도가 및 무이구곡 경영은 무이산지 등의 문헌과 그림을 통해 조선에 전파되었고, 국내에서도 산수 수려한 곳에 가거지를 정하고 산간계곡 요처에 동천과 구곡을 설정하고 정사를 경영하는 등, 반복과 모방의 과정을 통해 문학적·원림경관적 사례가 해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겨났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인 주자의 의도와 용인에 관계없이 구곡문화는 조선에 수용되었고 수용자 계급의 유교 및 도교문화적 상황과 경제제민(經世濟民)적 사대부 사고관에 편승하여 새로운 문화로 발돋움하게 되고 그 결과 조선 원림문화는 무이도가와 무이구곡에서 나타난 상자연의 미의식을 수용하면서 은둔의 정취와 성리학적 사유방식이 결합되어 창출되는 새로운 구곡원림문화를 창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텍스트적 요인에 의한 의존관계를 볼 때, 국내에는 무이구곡과 같이 배를 타고 하상을 거슬러 올라갈만한 하천이 드문 관계로 형태적 연속구조는 이완된 채 도학적 상상력이 국내 구곡의 내적 구조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구곡원림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무이구곡'의 텍스트성을 지배하는 요인은 첫째, 「하천경관 본연의 굽음의 미학, 물돌이」, 둘째, 「원림 영역성의 표현, 각자(刻字)와 '이름붙이기」, 셋째, 「의미경관에 대한 성찰로 재생산되는 문화적 풍경」, 넷째, 「감각적 투시의 시선으로 본 기(奇)의 추구와 그 표상성」,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도교와 성리학적 토포스로 본 초월적 풍경」으로 해석되었다.

주 1. 우리나라의 전통 원림은 궁중원림, 관아원림, 복거원림 등으로 구분하며, 복거원림의 한 유형인 별업원림은 별당원림과 별서원림 그리고 명

산에다 정사를 지어서 거하는 구곡원림 등으로 구분된다(이은창, 1988).

- 주 2.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대개 주자의 무이도가를 연상하며 자신들이 경영했던 구곡원림을 구곡시가, 즉, 한시, 시조, 가사 등의 형태로 읊었다. 조선 중엽 이후로는 많은 구곡시와 구곡가가 창작되었는데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한문구곡시와 국문구곡가로 나누어지고 한문구곡시는 창작구곡시와 한역구곡시로 나누어진다. 창작구곡시는 무이도가의 차운시 형식으로 직접 경영하던 구곡원림을 노래한 원림구곡가와 차운구곡시, 화운구곡시 등으로 나누어진다(김문기, 2005).
- 주 3. 중국의 유네스코 등록된 복합 자연문화유산은 무이산 이외 태산, 황산 그리고 아마산-낙산대불 등 모두 4개 처이다.
- 주 4. 15개 구곡명과 소재지는 고산구곡(황해도 해주), 퇴계구곡(경북 안동), 곡운구곡(강원도 화천), 화양구곡(충북 괴산), 무흘구곡(경북 상주·김천), 선유동구곡(충북 괴산), 선유구곡(충북 문경), 죽계구곡(경북 영주), 고산구곡(충북 괴산), 운암구곡(충북 단양), 용호구곡(전북 남원), 연하구곡(충북 괴산), 옥화구곡(충북 청원)이다.
- 주 5. 무이도가는 내용상 인물기흥(因物起興)의 서경시로 보는 견해와 탁물우의(托物寓意)의 서정시로 이해하려는 두 갈래 문에 비평의 양상이 노출되고 있는 데(신두환, 2007: 234) 본 연구에서는 무이도가의 품격을 입도차제(入道次第) 성격의 도학의 단계에 비유한 시임을 전제로 하였으나 서경적 측면의 성향도 함께 파악하였다.
- 주 6. 상호텍스트성이라고도 하며, 말 그대로 여러 텍스트간의 기호교환현상 또는 보다 정확하게는 교변현상(交變現象)을 일컫는 개념으로 서로 다른 분야의 작품들(texts) 속에 담긴 인물이나 사건, 상황 등의 대표적인 기호들이 전치, 병합, 모방, 패러디 등을 통해 서로 교환되는 문학적 현상을 의미한다(유혜령, 1999).
- 주 7. 무이산지의 무이산 전도는 다수의 판본이 전해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대만 중앙연구원 전시년도서관 소장의 1846년 작 사이적 찬 목판본이며, 이와는 별도로 <구곡산천본건지도> 등의 세부화가 있다(최중현, 2000: 722).
- 주 8. 심우경과 강훈(1989)은 사찰 영지에 산이나 탑 또는 불상이 비취도록 의도한 경관 개념을 차경의 개념과는 별도로 인경(인경: pulled scenery)로 정의한 바 있다.
- 주 9. 전설에 의하면 옥녀는 옥황상제의 딸이었다. 하늘에 살던 옥녀는 아버지 몰래 구름을 타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가 무이구곡의 산수에 매료되어 돌아갈 줄을 몰랐다. 우연히 大王과 알게 되어 서로 사랑을 하여 자식을 낳고 인간 세상에 살았다. 이를 본 칠판도인이 옥황상제에게 고하자 옥황상제가 크게 노하여 칠판도인에게 옥녀를 잡아오도록 했다. 옥녀는 대왕과 같이 인간 세상에 살고자하여 뜻을 꺾을 수 없었다. 칠판도인은 마법을 써서 옥녀와 대왕을 돌로 만들어 계곡의 양쪽에 두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옥녀봉과 대왕봉 사이에는 칠판장이란 병풍바위가 있는데, 칠판도인이 대왕봉과 옥녀봉이 만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라 한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관세음보살이 대왕과 옥녀를 불쌍히 여겨 옥녀봉 맞은편에 경대를 두어 서로 얼굴을 비춰보게 하였다고 한다.
- 주 10. 중국에는 무이산을 비롯하여 총 7개소의 단하지모 지형이 존재하는데, 광동성의 단하산, 강서성의 용호산, 호남성의 팔각재, 감숙성의 장액 그리고 귀주성의 적수가 그 사례지역이다.
- 주 11. 이에 따르면 곡류심유형은 무흘구곡, 포천구곡, 도산구곡, 석문구곡, 쌍용구곡, 화지구곡, 곡운구곡, 고산구곡, 옥화구곡 등이며, 계곡각자형은 선유구곡, 죽계구곡, 벽계구곡, 같은구곡, 용하구곡, 우이구곡 등으로 분류하였다.
- 주 12.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하나는 가학선 혹은 선관이라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잔도(殘道)를 가설한 목관(홍판교)이라는 설이다. 그런데 1978년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선관임이 밝혀졌는데, 이는 무려 3,800여년 전의 유물이다(王長靑, 2002).
- 주 13. 고월인은 사람이 죽었을 때 배를 만들어 그 안에 시체를 안장하는 장례 풍습이 있었다.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배를 타고 다른 세계로 간

다는 고월인의 의식에서 나온 풍습으로 고월인은 시체를 실은 배를 무이계 바위 벼랑 사이에 안치하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곳에다 안치하였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이다.

인용문헌

1. 강성원(2003) 호헌서원에 반영된 율곡의 건축미학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강신애(2005) 조선시대 무이구곡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강신애(2007) 조선시대 무이구곡도의 연원과 특징. 미술사학연구 254: 5-40.
4. 강정서(1993) 구곡가계 시가에 나타난 공간이미지와 지향의식.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강정서(1998) 퇴계의 <무이도가> 시인식의 한 국면: 제곡곡시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14: 161-178.
6. 고연희(2007) 조선시대 산수화, 아름다운 필묵의 정신사. 들베개.
7. 고경희(2005) <도산십이곡>과 <고산구곡가>의 언어적 차이와 시가사적 의미. 국어국문학 141: 197-141.
8. 권석환 엮음(2004) 한중관경구곡과 산수문화. 이회출판사.
9. 권석환, 김동욱, 안장리, 이석해, 이정수, 이행렬(2002) 중국문화답사기 1: 오월지역의 향수를 찾아서. 다락원.
10. 기근도(2008) 경상좌도 동천구곡의 지형적 특성. 한국지형학회지 15(2): 95-109.
11. 기근도, 김영래, 조현(2007) 경상우도 동천구곡의 지형적 특성. 한국지형학회지 14(3): 123-136.
12. 김광래, 노재현, 안범용, 최현상(1993) 화양동 계곡의 경관특이성과 선호성분석에 관한 연구. 경희대 조경계획연구소. 조경논총 5(1): 13-26.
13. 김덕현(2008) 전통명승 동천구곡의 유래와 사례. 문화재청. 전통명승 동천구곡의 유형과 활성화 방향.
14. 김도남(2002) 텍스트 이해의 상호 텍스트성. 국어교육학연구 14: 131-163.
15. 김문기(1991) 구곡가계 시가의 계보와 전개양상. 국어교육연구 23. 경북대 국어교육연구회.
16. 김문기(2005) 문경의 구곡원림과 구곡시가. 한국학술정보(주).
17. 김문기(2008a) 퇴계구곡과 퇴계구곡시 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42: 241-275.
18. 김문기(2008b) 도산구곡원림과 도산구곡시 고찰. 퇴계학과 한국문화 43: 193-233.
19. 김문기, 안태현(2005) 문경지방의 구곡원림과 구곡시가 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35: 233-278.
20. 김병국(1990) 고산구곡가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1. 김병국(2003) 「武夷樵歌」와 「高山九曲歌」의 품격 연구. 어문연구 31(117): 105-124.
22. 김수진, 김태수, 심우경(2008) 한강 정구(1543~1620)의 무흘구곡 경영과 이상향.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6(4): 59-73.
23. 김수진, 심우경(2005) 고산구곡에 나타난 율곡의 경관관.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4): 1-13.
24. 김양식(2005) 화양동의 가치 발굴과 문화관광지 개발방안 연구. 충북개발연구원학술정보.
25. 김열규(2003) Topophilia: 토포스를 위한 새로운 토포로지와 시학을 위해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3): 329-332.
26. 김의숙(2006) 화천의 곡운구곡과 김수증 연구. 강원민속학 20: 435-462.
27. 김주한(1983) 퇴계의 주자시 이해: 무이도가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10: 47-92.
28. 김창원(1997) 호중천지의 원림미학과 <도산십이곡>의 강호. 국어국문학.
29. 김혜경, 최기수(2007) 조선시대 인왕산 바위굴씨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2): 167-181.
30. 남창근, 이재현(2000) 조선 중기 정사건축에 나타난 공간적 특성에 관

- 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1. 노재현(2008) 중국 무이구곡의 장소 미학과 하천 형태학적 특성: 국내 구곡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6(4): 1-11.
32. 문화재청(2007a) 2007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충청남도·충청북도, 대전지역).
33. 문화재청(2007b) 전통명승 동천구곡 조사보고서.
34. 문화재청(2008) 전통명승 동천구곡의 유형과 활성화 방향.
35. 민주식(1999) 조선시대 지식인의 미적 유포피아: 무이구곡의 예술적 표현을 중심으로. 미학(한국미학회): 23-51.
36. 박이정(2002) 18세기 예술사 및 사상사의 흐름과 권섭의 '황강구곡가'. 관악어문연구. 27: 283-304.
37. 박희성(1997) 정약용의 자연관과 다산초당원의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8. 배수찬(2002) 한자의 특성에 대한 형상학적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5: 213-236.
39. 손오규(1992) 고산구곡가의 미적 위상. 한국문학논총 13: 31-48.
40. 손오규(2002) 산수문학에서 「曲歌系詩歌」의 공간인식. 한국문학논총. 32: 219-239.
41. 손오규(2004a) 무이도가와 무산십이곡의 품격연구. 어문연구 117: 105-124.
42. 손오규(2004b) <무이도가>와 <도산십이곡>의 비교연구. 한국문학논총 38: 61-89.
43. 손오규(2006) 산수미학탐구. 제주대학교출판부.
44. 신두환(2007) 朝鮮 士人の 「武夷樵歌」 비평양상과 그 문예미학. 대동한문학 27: 217-252.
45. 심우경, 강훈(1989) 한국 고대사찰에 있어서 영지의 상징적 의미와 수경적 가치. 한국정원학회지 7(1): 69-96.
46. 심우경(2006) 「武夷山志」의 朱子詩 내용 연구. 중국문학연구 25: 45-62.
47. 오용득(1995) 가다머의 언어관. 철학논총 11(1): 225-262.
48. 유병림, 황기원, 박종화(1986) 조선조 정원의 원형.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
49. 유준영(1981a) 구곡도의 발생과 기능에 대하여: 한국 실경산수화 발전의 일례. 고고미술 151: 1-20.
50. 유준영(1981b) 실경산수의 연원으로서 구곡도. 계간미술. 19호(중앙일보사): 171-186.
51. 유준영(1984) 조형예술과 성리학: 화음동정사에 나타난 구조와 사상적 계보. 한국미술사논문집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38.
52. 유준영(1986) 성리학자의 정사경영과 구곡도. 전통문화 19: 122-130.
53. 유혜령(1999) 텔레비전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나타난 아동문화의 상호 텍스트성: 기호학적 분석. 교육인류학 연구 2(1): 37-62.
54. 윤진영(1997) 조선시대 구곡도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5. 윤진영(1998) 조선시대 구곡도의 수용과 전개. 미술사학연구 217: 218: 61-91.
56. 이만부, 식산집(息山集). 권 20.
57. 이민홍(1982) 무이도가 수용을 통해 본 사립파문학의 일양상: 퇴계, 하서, 고봉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6: 25-44.
58. 이민홍(1985) 사립파의 무이도가 수용에 대하여: 도교적 전설과 재도적 부회. 도남학보 7: 28-45.
59. 이민홍(1999) 조선조 중기 선비들의 시의식: 주자시의 평석을 중심으로. 고문화. 53.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7-40.
60. 이민홍(2003) 무이도가의 서시의 한중 화운시 비교고찰. 동방한문학. 24: 61-79.
61. 이상원(2003) 조선후기 고산구곡가 수용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24: 42-43.
62. 이상주(1999) 구곡시의 전통과 화양구곡시. 교육과학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3: 75-98.
63. 이상주(2001a) 구곡문화관광특구와 구곡시 연구. 어문논총. 청주대학교 동서어문학회 17: 75-98.
64. 이상주(2001b) 노성도와 연하구곡가. 한문학보. 제4집. 우리한문학회: 167-193.

65. 이상주(2001c) 옥화구곡과 옥화구곡시. 충북학. 제3집. 충북학연구소: 125-149.
66. 이상주(2001d) 낙우당구곡과 낙우당구곡시의 분석. 교육과학연구 12(2): 73-89.
67. 이상주(2002) 서계구곡과 '서계팔영'시. 교육과학연구 16(1): 149-177.
68. 이상주(2003) 운선구곡과 운선구곡시. 청주대학술논문집 1: 403-432.
69. 이상주(2004) 정재용의 쌍계구곡과 쌍계구곡시. 청주대학술논문집 3: 143-166.
70. 이상주(2006) 조선후기 산수평론에 대한 일고찰: 화양구곡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14: 215-244.
71. 이상주(2008) 화양구곡, 선유구곡의 완성과정과 화양구곡도. 한문학보 18: 525-555.
72. 이석해, 이행렬(2001) 문화경관으로 본 곡운구곡의 특성. 한국정원학회지 19(4): 47-59.
73. 이은창(1988) 한국유가 전통원림의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4: 298-304.
74. 이종목(2006) 조선의 문화공간 1책. 휴머니스트: 22-41.
75. 이창식(2001) 권섭의 '황강구곡가' 연구. 시조학논총 27: 107-142.
76. 임재철, 장동수(2001) 죽계구곡의 경관 의미: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수입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9(3): 19-29.
77. 장사를장봉(2003) 인간의 내면세계와 외부세계를 연결하는 만남의 여정: '구곡'의 관념에 대하여. 문화예술. 이천삼년 칠월호: 92-97.
78. 정인하(2004) 라 빌레트공원의 계획과정에 나타난 텍스트 개념 연구. 프랑스학연구 28: 409-434.
79. 조규희(2006a) 조선 유학의 '道統'의식과 九曲圖. 역사와 경계 61: 1-24.
80. 조규희(2006b) 곡운구곡도첩의 다층적 의미. 미술사논단. 23: 241-275.
81. 조성덕(2005) 무이도가의 수용과 변용에 대한 일고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2. 조용돈(2006) 논설문 생산의 텍스트 언어학적 책략. 대학사.
83. 조해숙(2003) 전승과 향유를 통해 본 '개암십이곡'의 성격과 의미. 국어국문학 133: 253-283.
84. 조현(2006) 동천구곡 경관의 3D 재현: GIS활용기법을 중심으로. 경남문화연구 27: 327-338.
85. 朱子, 朱子大全. 9. 詩.
86. 최기수(1990) 곡과 경에 나타난 한국전통경관 구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7. 최기수(1991) 德洞九曲에 나타난 전통조경구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논문집 25: 279-293.
88. 최기수(2004) 자연에서 얻는 삶의 지혜: 팔경과 구곡. 한국조경학회지 22(4): 136-138.
89. 최종현(2000) 주자의 무이구곡도. 실학사상연구 14: 707-723.
90. 최종현(2007) 원림건축형식으로서 한국전통산수화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4): 13-36.
91. 허균(2002) 한국의 정원: 선비가 거닐던 세상. 다른 세상.
92. 황진성(1965) 고산구곡가 연구. 동악어문논집 1: 195-226.
93. 황충기(1980) 입암구곡과 입암십이구곡의 대비 고찰. 국어국문학 82: 75-107.
94. Jambon, Jean-Charles(2005) Les enjeux contemporains de la notion de gugok. 프랑스문화예술연구 14: 1-21.
95. de Beaugrande Dressler(1981) Einführung in die Textlinguistik. Tübingen: Niemeyer. 정희자(역), 담화와 문법.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8.
96. 董天工, 武夷紀要自敘 武夷山志. 권 21.
97. 雍万里(2006) 武夷山水, 海潮攝影藝術出版社, 中國 福州市.
98. 王長青(2002) 解讀武夷山. 中國 海風出版社.
99. <http://blog.daum.net/windada11/8052826>
100. <http://www.whwy.org>
101. <http://earth.google.com/intl/en/>

원 고 접 수 일: 2008년 11월 27일
 심 사 일: 2009년 1월 8일(1차)
 2009년 1월 15일(2차)
 2009년 1월 21일(3차)
 개 재 학 정 일: 2009년 1월 22일
 3 인 의 명 심 사 필